

# 미래 농촌 공간 청사진 구상

## 무주군, 재편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나서

무주군이 향후 10년간 지역 농촌 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과 스마트팜, 관광특구 등 변화된 산업·관광 여건을 반영한 미래 농촌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무주읍을 중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서부와 동부 지역을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해 '발길이 머물고 삶이 뿌리내리는 자연특별시, 상생·자생 무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무주군은 읍면 소재지와 배후 마을 간 생활서비스 연계 및 공급망 개선을 비롯해 특화농업 고도화, 관광·생

태·산업자원 활용, 유휴·노후 자산 재생 등 분야별 계획을 마련하고 농촌 특화지구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에 맞춰 무주의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농촌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석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은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무주군의 실정을 반영한 미래 농촌 공간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편리한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일터, 누구나 찾고 싶은 쉼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주민과 관계 기관, 지역 계획연구소 누리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농촌 경쟁력 확보와 공간 재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무주군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무주군의회 의견 청취와 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 무주군, 민선 9기 공약 사업 93개 확정

무주군이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선 9기 112개 공약 사항을 대상으로 부서별 검토와 총괄 부서 조정을 거쳐 최종 93개로 압축했다. 실현 가능성과 추진 주제, 재원 확보 가능성, 임기 내 달성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공약은 5대 군정 목표에 21개

분야, 30개 전략 과제로 짜였다.

군정 목표는 △모두가 누리는 '기본 사회' △기회를 살리는 '혁신경제' △사계절 머무는 '관광도시' △가치를 키우는 '소득농업' △군민을 섬기는 '책임행정'이다.

무주군은 최종 확정된 공약을 대상으로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목표와 성과 지표 설정, 연차별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계획 구체화에 나선다. 군정 비전과 공약 취지를 반영한 공약실천계획을 다음달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은 미래 비전을 담은 홍보자료 제작에 들어간다. 영상 파일 형태의 이 홍보자료에는 무주형 기본 사회 완성 및 항공우주 중심도시 도약과 광역 도로 및 철도망 확충을 통한 물류·교통 중심지, 청정 자연과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 경쟁력 등의 비전을 담는다.

/무주=손흥기 기자

## 진안군 동향면 농촌서비스 공동체 발대식 열려

진안군 동향면 농촌활동가 30명이 주민 주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동해 독거노인 등 면민 500명에게 5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안군과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생생마을관리소는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지역 주민의 힘으로 해소하기 위해 19일 '동향면 농촌서비스 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 공모사업인 생생마을관리소 운영은 농촌활동가들이 5개의 서비스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불빨래, 병원동행 교통이동, 실버가 수리, 안부확인 및 반찬나눔, 집수리 등 주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약 500명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주민관계망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외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면민들이 농촌활동가로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살피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비스별 활동 과정에서 발견된 복합적인 생활 불만은 행정과 지역지원기관이 연계해 해결할 계획이다.

진안군과 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농촌서비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면단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지속 가능한 농촌 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모집

장수군은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처럼 단기간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에 도입 인원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등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숙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해당 구간을 전면 개통했다.

## 임실 성수~진안 진안 3공구 개통

### 415억원 투입·국도30호선 5.04km 구간 도로 시설 개선

진안군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한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해당 구간을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도30호선 중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서 진안을 반월리까지 약 5.04km 구간의 불량한 도로 선형과 시설물을 개선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한 이번 사업은 2020년 9월 착공해 약 6년간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415억 원이 투

입됐다. 기존 도로의 불량한 선형과 시설물을 개선해 도로 이용 여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도로개량으로 진안읍과 마령면 간 통행 여건이 개선되고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안전 향상은 물론,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 초기에는 현장 여건과 교통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19일 용담댐에서 제7733부대1대대,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6개 기관 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 진안군,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 국가중요시설 용담댐 드론폭탄테러 가정 훈련

진안군은 19일 용담댐에서 제7733부대1대대,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6개 기관 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용담댐에서 드론 폭탄테러에 의한 건물붕괴, 화재발생 등의 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민·관·군·경·소

방·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준성 군수는 "북의 침투 전술에 대비해 드론 폭탄을 격추하는 등의 새로운 대테러 연습 등을 체험하고 대테러 매뉴얼을 점검해야 실제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장수군,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장수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과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합동점검반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하는 관내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이성 혼수 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및 제공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업주들에게 청소년의 출입이나 주류·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안내했다. 특히 신분증의 진위 여부와 본인 일치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마이산탐사, 도민체전·진안 홍삼축제 기간 관람료 면제

한국불교태고종 마이산탐사(주 지 진성스님)가 2026 전북도민(장애인)체전 및 2026 진안홍삼축제 기간 동안 마이산탐사 관람료를 정액 면제한다.

이번 무료개방은 대회와 축제를 위해 찾은 방문객들이 진안의 대표 관광명소인 마이산과 마이산탐사를 부담 없이 둘러보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마이산탐사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18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대회 및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행사 참여와 함께 마이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탐사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